

이 산을 내게 주소서

성경말씀: 수14:6-15

이번 서울 시장 선거: 이후의 제목: 4년 전 경제를 살리라고 세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실망, 한나라당,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무소속 후보에게로 옮겨갔다. 정당에 희망이 없다. 무소속 후보를 찍었다. “희망이 없다.”

혹시 믿음 생활에서도 이런 현상이 생기면 안 될 텐데 하는 걱정이 든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이 있다.

성경대로 바르게 해 보려고 하는데 어려움만 생긴다. 일이 꼬인다. 혹시 내게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소망의 메시지(롬15:4)가 필요하다. ‘이 산을 내게 주소서’

배경

400년 종살이, 이집트 탈출: 장자의 죽음, 홍해, 만나, 가데스바네아(2년 뒤, 신2:14), 12명 스파이(민13) 유다 지파의 대표: 갈렙,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 호세아, 40일 동안 탐지

악한 보고: 젖과 꿀이 흐른다. 땅은 좋은데 아낙 족속, 가나안 족속이 있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좋은 보고: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취하자.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

40일, 40년간의 광야 생활, 모세의 죽음, 여호수아의 치리, 7년 동안 가나안을 정복함 45년의 시간이 흐름, 갈렙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됨. 적어도 20세 이상 제비 뽑아 땅을 나누기 바로 전에 여호수아에게 나옴.

“이 산이 있는 도시 헤브론은 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

갈렙의 청원

갈렙은 그나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이다(6절): 원래 에돔 족속이었는데 유다로 편입되었다.

갈렙은 정복한 땅을 지파들 가운데 나누는 일을 수행한 통치자 중 하나였다(민34:19).

1. 공정한 집행을 위해 유다 자손(6)을 대동하고 2. 여호수아(6)와 3. 주의 종 모세(7)를 언급함
4. 자신의 간증: 내 마음 속에 있는 대로(7), 아침하는 말로 하지 않고 진심으로 보고하였다.

“나는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습니다.”(8) ★★★

5. 모세도 인정하였다(9). “이 땅은 너와 네 자손의 땅이 되리라.”

6. 그 이후의 45년 행적(10-11):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였다.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온갖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전쟁과 죽음 속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셨다.

지금 85세에도 그 산을 정복하는 데 문제가 없다.

7.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약속: “이 땅은 네 것이다.”(9절)

그런데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여전히 문제가 있다. ★★★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12). ★★★

8. 여호수아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축복한 뒤 헤브론을 그에게 상속 재산으로 삼게 하였다.

하나님의 보상의 조건(히11:6)

온전히 주를 따랐다: 완전/완벽함을 뜻하지 않음, 성경의 어떤 인물도 100% 완벽함을 보이지 않는다. 민14:24, 그는 다른 영을 지녔다.

- a. 늘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르려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요일5:3).

온전히 그분을 따른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낸다: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파라오의 군대, 아론과 회중의 어리석음, 모세의 죽음, 가나안 족속들의 저항, 가나안의 거인들, No problem 끝까지 인내하였다.

- b. 하나님의 뜻과 명령은 말씀에 있으므로 말씀을 신뢰하였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사26:3).

- c. 하나님의 약속들을 견고하게 붙잡았다.

- d.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참고 인내 하였다. 45년 동안, 인생의 끝까지

같은 부류의 스파이들이 배반할 때, 온 회중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할 때, 반대와 악

조건에도 불구하고(목숨이 위험한데도).

e.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백성의 안위를 증진시켰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삼상2:30).

갈렙의 교훈

1. 갈렙의 강인한 성품을 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지를 원한다. 그러나 산지는 어려워도 올라가면 전망이 좋다. 적을 대적하기에 좋다.

성경의 사람들의 특징: 불굴의 정신, 사도 바울, 안디옥 교회에서 대접받으며 살 수 있었다.

2. 성품의 일관성을 본다.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나 지금이나 그는 여전하다.

성경의 사람들의 특징: 요셉, 총리가 되기 전이나 된 후에나 같다.

3. 그의 소망과 믿음을 본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예수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히12:2)

누구만 보는가? 하나님만 본다.

교회 빌딩 임대: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악조건이 많다. 하나님만 보고 바르게 하자.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임대 일에 참여하는 사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라.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라.

4. 그의 지혜를 본다. 산의 요새는 얻기 어렵지만 일단 얻으면 보배가 된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 및 보급, 바른 교회 확립, 바른 성경 학교, 바른 사역자들, 바른 가정, 바른 자식 키우기

5.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것을 본다. 모세의 말, 갈렙은 반복하고 여호수아는 지켰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었다.

요즘 곳곳에 심각한 재정 위기, 가면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진다(성경의 예언).

사업하는 형제들, 가정의 가장들

성실히 살아야 한다(아이들, 청년들 기억해야 한다).

히13:5-6, 고전10:13, 요삼 2

6. 그의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다. 부모에게 영광을 들리는 자들이 되자.

결론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는가? 과거의 인생의 어려움을 보라.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를 알고 있는가? ★★★

우리의 소망은 어려움이 있는 데서도 꺾이지 않는가? 거인들, 나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때문인가? 내 힘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인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부활, 휴거, 물질과 장수와 아이들의 복, “잘 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오늘 우리 앞에 서 있는 산은 무엇인가?

“이 산을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자. ★★★